

# 미·이란, 협상교착 우려 현실화하나...물밑소통 여지 남아

### 트럼프, '수개월' 대이란 봉쇄 가능성 언급...이란 "인내 한계" 경고 이란 '수정 평화안' 제의할수도...브렌트 4년만 최고치 등 불확실성 ↑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불발 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인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가 수개월 더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역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간접적인 소통 채널은 희미하게 유지되는 모습이다.

29일(현지시간)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와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 장기화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은 핵 문제를 모든 합의의 핵심 조건으로 명확히 내건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프로그램 관련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지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이란 해상봉쇄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앞서 다른 여러 매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장기적 해상봉쇄를 준비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유업체 임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해상 봉쇄가 몇개월 더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에너지 시장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을 먼저 논의하고 핵 문제는 추후 협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고위 안보 소식통은 "이란군은 이제 해상 봉쇄에 대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불법적인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경우 단호한 응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집과 망상이 계속되고 이란의 조건이 거부될 경우, 적들은 해상 봉쇄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중재국으로 나선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협상 채널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파키스탄에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존 협상안을 보완한 '수정 평화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 교착 장기화 우려에 국제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았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61% 급등한 배럴당 118.03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중 배럴당 119.76달러로 고점을 높이며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증가는 배럴당 106.88달러로, 전장보다 6.95% 상승했다. /연합뉴스



케데헌 헛트릭스 빌보드 시상식 29일(현지시간)오드리 누나, 이재, 레이 아미(왼쪽부터)가 할리우드 팔라디움에서 열린 2026 빌보드 여성 음악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중노동절 연인원 15억2천만명 최대규모 이동...소비도약 발판되나

닷새에 걸친 중국 노동절 연휴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구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수 소비도약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30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올해 노동절 연휴(5월 1-5일) 전체 인구 이동량이 역대 최대인 연인원 15억2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루 평균 3억4천만명이 이동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연휴 첫날 이동 인원은 3억4천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이동 인구 가운데 90% 이상이 도로를 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철도와 항공 여객 수송 규

모도 각각 1억7천만명과 1천1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각 지역 학교가 잇달아 봄방학에 들어가 사실상 연휴 시즌이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총 17일에 달해 실제 이동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항공유 가격 상승과 국제항공 노선의 불확실성에 따라 해외여행에서 국내여행으로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사 '취날'은 800km 이상 국내 장거리 여행 예약이 작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고 밝혔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 '투

뉴' 역시 국내 패키지여행 예약이 10% 증가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의 경우 중일 관계 악화와 항공료 급등으로 일본 등을 계획하던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 홍콩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홍콩 호텔 숙박비는 최대 8% 오른 상황이다.

한국과 대만으로 떠나는 중국인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황금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 10만~11만명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 에콰도르 1만5천명 수용 '메가 감옥' 짓는다

엘살바도르식 치안 모델 좇아...5월 착공

100여명의 수감자는 30평(100㎡) 남짓한 감방 안에서 생활한다. 24시간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맨바닥이나 4단으로 쌓인 금속 선반 위에서 잠을 자야 한다. 화장실 변기도 감방 안에 한두 개 뿐. 수감자들은 하루 30분을 제외하고, 23시간 30분을 여기서 보내야 한다.

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엘살바도르의 '메가 감옥' 세코트(CECOT)의 풍경이다.

이런 세코트를 모델로 한 거대 교도소 건설을 에콰도르가 추진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내달 두번째 대규모 교도소 건설에 착수한다. 완공까지는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존 라임버그 에콰도르 내무장관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에콰도르는 중남미 최대 교도소 '세코트'를 모델로 삼은 첫 번째 메가 교도소 '엘 엔쿠엔트로'를 지난해 11월 선보였다. 그러나 갇힌 800명 안팎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해 '메가'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응색했다.

이번에 건설되는 두번째 교도소는 '메가'라는 규모에 걸맞을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위치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지 등은 보안상의 이유로 설명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엘사 비커"...美 어린이들 '케데헌' 여전한 인기

한국 문화를 녹여낸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생일 파티부터 방과 후 수업, 패스트푸드 가게까지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엘사 비커, LA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엔터테이너는 케데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지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가 식지 않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 소개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생일 파티에서 '케데헌' 속 걸그룹 헌트릭스나 보이그룹 사자보이즈로 분한 엔터테이너를 요청하는 수가 크게 늘었다.

엔터테이너는 파티에서 코스튬을 입고 특정 캐릭터로 분하거나 마술쇼와 페이스 페인팅, 게임 등을 진행하는 전문 진행자를 뜻한다.

과거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엘사-안나가 가장 인기 있었다면, 이 왕좌를 '케

데헌'이 차지하게 됐다. 것이다.

엔터테이너 업체 '핑키 디바 엔드 듀드'에서 1시간 반 동안 걸그룹 헌트릭스로 분장한 엔터테이너들이 나오는 어린이 파티를 요청하려면 1천700달러(약 252만원)를 내야 한다.

이 업체의 마리 라자레스키 공동 사장은 "우리는 요즘 '케데헌' 파티 외에는 다른 것은 하고 있지 않다"며 "어떤 때는 하루에 5번 '케데헌' 파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티뿐만 아니라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도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라자레스키 사장은 LA 지역 학교에서 '케데헌' 속 주제곡인 '골든' 등에 맞춰 방과 후 댄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3-5학년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최근 이 시리즈 후속작 제작을 공표했다. /연합뉴스

## 프랑스 높아진 문턱...가족 초청 이민 ↓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족 초청으로 인한 입국 건수가 현저히 감소해 매년 발급되는 첫 서류 허가의 5%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인구연구소(INED)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족 이민으로 프랑스에

입국하는 외국인 규모는 연간 5% 미만으로, 2020년-2023년 연평균 1만1천건에 그친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가족 이민 건수가 지금의 2-3배였던 것에 비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다.

프랑스 극우 진영 등에서는 가족 이민 조건을 더 강화해 국경을 더 촘촘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